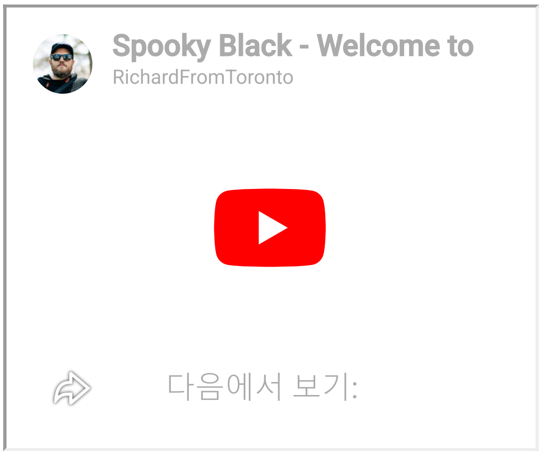
글동네

2022년 2월 23일 수요일

인류12022년 2월 23일 꿈일기

Spooky Black - Welcome to the hell zone (VAGUE003 remix)이라는 음악이 들렸던 꿈, 군대 시절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.



시간: 2월 23, 2022 댓글 없음:

2022년 2월 21일 월요일

인류12022년 2월 21일

바지 허벅지가 헤져서 구멍이 났다는 꿈을 꾸었다.

시간: 2월 21, 2022 댓글 없음:

2022년 2월 20일 일요일

인류12022년 2월 20일 꿈일기

고등학교를 다니는 꿈이었는데 내가 지하철 타고 먼 길을 지나 등교 직전이었지만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오는 바람에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주친 어느 선생한테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다시 열차를 타려 했던 꿈을 꾸었다.

시간: 2월 20, 2022 댓글 없음:

2022년 2월 17일 목요일

인류12022년 2월 17일 꿈일기

무면허인데 형 차 운전을 하다가 속력 제어를 못해 빙빙 돌다가 충돌로 왼쪽 비상등을 깨버린 꿈을 꾸었다. 다른 꿈도 꿨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.

시간: 2월 17, 2022 댓글 없음:

2022년 2월 16일 수요일

태그

- 꿈일기
- 명언
- 일기

블로그 보관함

신고하기

- 홈

이 블로그 검색

검색

인류12022년 2월 16일 꿈일기

마리오 몇 주년 기념축제 하던데 몇 주년인지는 모르고, 마리오당이란 장난 정당을 구상하며 어느 가게에 게임CD들 진열된 걸 봤고, 백화점 같은 데서 포졸 코스프레한 사람을 봤고, 트와일라잇 포스 메가믹스 듣고, 어느 RTS 게임에서 바티칸, 산마리노 등 실제 국가 맵들이 나온 꿈을 꿨다.

시간: 2월 16, 2022 댓글 없음:

2022년 2월 15일 화요일

인류12022년 2월 15일 꿈일기

학교 야자 석식 때 시간이 많아 밖에 나갔는데 문방구에서 그라디우스 LCD 게임기를 단돈 100원에 팔길래 바로 사서 가방에 넣고 학교로 돌아가니 프리파라의 미레이가 경멸 표정을 짓다 미소를 짓는데 사실 외출금지령이나 몰래 눈 감아준거고, 학교 화장실이 휴게소 화장실급인 꿈을 꾸었다.



시간: 2월 15, 2022 댓글 없음:

2022년 2월 13일 일요일

꿈일기: '22년 2월 13일

시골에 갔는데 흰색 강아지가 내가 좋아서 앞발을 다리에 기대고 내 손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 깨물고 있었고 집에 와서도 그 강아지가 내 손을 아프지 않게 살짝 깨물며 장난을 쳤다는 꿈을 꾸었다. 시골에 있었던 또 다른 꿈을 꿨었는데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다.

시간: 2월 13, 2022 댓글 없음:

피드 구독하기: 글 (Atom)